

가계 연료비 지출 역대 최대 상승...우크라이나 사태로 부담 더 ↑

지난해 4분기 연료비 지출 19.1% ↑

2006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

지난해 4분기(10~12월) 전체 가구의 운송 기구 연료비 지출이 역대 최대 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유가 상승 등 에너지 가격 급등세가 가계 부담으로 이어진 것이다. 가뜩이나 커진 연료비 지출 충격은 올해 더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고공행진하는 에너지 가격이 올해 1분기 가계 지출부터 고스란히 반영되기 때문이다. 9일 통계청의 '2021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전체 가구의 월평균 교통비 지출은 29만6000원으로 전년 같은 분기보다 3.2% 감소했다. 하지만 교통비에 포함된 운송기구 연료비는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19.1% 증가한 월평균 10만6000원을 소비했다. 이는 1인 이상 가구를 조사한 2006년 이래 역대 최대 증가 폭이다. 운송기구 연료비는 승용차, 오토바이 등

가정용 운송기구 운영을 위해 지불하는 연료비로 휘발유, 경유 등 석유류 지출이 포함된다. 지난해 국제 유가 상승으로 석유류 가격이 오르면서 가계의 연료비 지출도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운송기구 연료비 월평균 지출은 전년 같은 분기와 비교했을 때 2020년 2분기부터 지난해 1분기까지 4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2분기(15.8%)부터 급격히 증가했다. 이어 지난해 3분기에는 전체 가구의 월평균 운송기구 연료비 지출이 2019년 4분기 이후 7분기 만에 10만원을 넘어이기도 했다. 가계의 연료비 부담은 올해 1분기부터 더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연일 새로운 기록을 쓰고 있는 국제 유가 상승세가 올해부터 가계 지출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면서다.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125.19달러로 지난해 말과 비교해 62.3% 올랐다. 같은 기간 브렌트유(선물)와 서부텍사스원유(WTI·선물) 가격은 각각 58.4%, 58.8% 오른 123.21달러, 119.40달러를 기록했다. 브렌트유와 WTI는 장중 130달러를 넘기면서 2008년 7월 기록한 최고치를 갱신하기도 했다. 국제유가는 2~3주 시차를 두고 국내에 반영되는데 벌써 우크라이나 사태 여파가 국내 유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유류세를 20% 인하한 뒤 9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다가 지난 1월 10일부터 다시 상승세로 전환한 것이다. 실제 8일 오전 10시 기준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일 대비 22.42원 오른 0당 1921.68원을 기록하며 제주도에 이어 두 번째로 1900원대 지역으로 올라섰다. 전국 휘발유 가격은 0당 1845.61원으로 전일과 비교해 17.27원 올랐다. 2014년 9월 이후 약 7년 반 만에 최고치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해 기름세를 보인 국제유가가 작년 4분기 가계의 연료비 지출에 영향을 미쳤다"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한 것은 올해 1



분기부터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제 유가 상승으로 가계의 유류비 부담이 높아지자 정부는 유류세 20% 인하 정책을 7월까지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향후 국제유가 상승 폭이 커지면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호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고유가로 인한 물가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4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7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하겠다"며 "향후 국제유가가 현 수준보다 가파르게 상승해 경제 불확실성이 더 확대될 경우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선욱기자

애플 5G 지원 '아이폰SE', 25일 한국 출시

SE에 13과 동일한 'A15바이오닉' 칩셋 탑재



애플이 9일 5G 이동통신을 지원하는 새로운 보급형 스마트폰 '아이폰(iPhone)SE'를 공개했다. 아이폰SE는 ▲미드나이트 ▲스타라이트 ▲(PRODUCT)RED 세 가지 색상으로 출시된다. 저장 용량은 64·128·256GB로 세 가지 모델로 나뉜다. 가격은 59만원부터 시작한다. 국내 출시일은 오는 25일이다. 국내 사전 예약은 15일부터 진행된다. 호주, 캐나다, 중국, 프랑스, 독일, 인도, 일본, 영국, 미국 및 30개 이상 국가 및 지역의 고객은 오는 11일 오전 5시(태평양 표준시)부터 사전 주문할 수 있고, 매장 판매는 18일부터다. 아이폰SE는 4.7인치 화면 크기에 항공 우주 등급 알루미늄과 글래스 디자인을 적용했다. 아이폰13의 후면과 동일한 글래스를 전후면에 적용했다. 또 IP67 등급의 방수 및 방진 기능을 제공한다. 홈 버튼에는 Touch ID를 탑재해 앱 로그인, 앱 스토어 구매 승인 및 애플페이

거래 등을 간편하고 안전하게 지원한다. 아이폰SE의 가장 큰 특징은 'A15바이오닉(A15 Bionic)' 칩셋 탑재다. 애플의 고급 스마트폰 모델 아이폰13에 들어갔던 'A15바이오닉'은 2개의 고성능 코어 및 4개의 효율용 코어를 갖춰 아이폰SE를 아이폰8 대비 최대 1.8배 빠른 성능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첨단 카메라 기능을 구동하고, 사진 편집부터 게임 및 증강 현실과 같은 성능 집약적인 작업까지 가능하게 한다. 또 아이폰SE는 이전 세대 모델 및 기존 동일한 크기의 아이폰 모델 대비 향상된 배터리 사용 시간을 자랑한다. 또 무선 충전용 Qi 인증 충전기와 호환되며, 급속 충전도 지원한다. 특히 전면 카메라는 1200만 화소와 f/1.8 조리개를 탑재하며 성능 개선을 이뤘다. 스마트 HDR 4, 딥 퓨전(Deep Fusion), 사진 스타일, 인물 사진 모드 등을 지원한다. '스마트 HDR 4'는 스마트한 분할을 통해 색상, 명암, 노이즈를 피사체와 배경에 각각 다르게 적용시킨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까다로운 조명 환경에서 적정 노출을 맞춰 각 인물의 피부 톤과 조명에 최적화 되도록 노출을 조절함으로써 동일한 사진에서 각 인물을 다르게 표현해준다. '딥 퓨전'은 첨단 머신 러닝(ML)을 활용해 픽셀 단위 처리를 수행하며 질감, 디테일, 노이즈를 사진의 각 부분마다 최적화시킨다. A15 Bionic의 이미지 신호 프로세서(ISP)는 노이즈가 줄어든 대폭 개선된 동영상 품질을 제공한다. 특히 저조도 환경에서 향상된 화이트밸런스나 자연스러운 피부톤을 구현한다. 이슬비기자

'무료 반품', 온라인 쇼핑 한계 극복 마케팅 자리 잡나?

쿠팡, '로켓 와우' 회원에게 '30일 무료 반품 서비스'

"일단 한 번 써보시라니까요?" 고객에게 "무료 반품을 앞세워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브랜드가 늘어나고 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온라인' 한계를 넘어 고객에게 자사 상품을 접할 기회를 최대한 많이, 폭넓게 제공하기 위한 교육적이다. 다만 해당 브랜드들이 제품력에 자신감을 갖고 있지 않다면 농담이처럼 불어날 '반품 비용'을 감안했을 때 사실상 불가능한 마케팅이다. 이커머스 기업 쿠팡이 유료 멤버십 '로켓 와우' 회원에게 제공하는 '30일 무료 반품 서비스' 역시 사실상 체험 프로모션이다. 포장만 뜯어보고 반품하는 고객이 대부분이지만, 며칠 동안 사용해보고 반품하는 고객도 적잖기 때문이다. 로켓 와우 회원이 900만 명에 달하는 만큼 이런 서비스에 익숙해진 소비자가 다른 구매에서도 무료 반품을 원하는 심리는 더욱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온라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각 브랜드의 대응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마이스킨솔루스**
모던 더마 스킨케어 브랜드 '마이스킨솔루스(MY SKIN SOLUS)'는 9월까지 자사 공식몰에서 '유이가 쏘나'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대표 제품 '세라피움® 모이스트 인 트리트먼트'를 대상으로 50% 할인 판매, 무료 배송 등 혜택을 준다. 특히 본품과 함께 '체험본 샘플킷'을 증정한다. 일단 샘플을 써보고 만족하지 않을 경우 본품만 무료 반품하면 된다. 구매 확정 후 '포토 후기 선물 증정 이벤트' '후기 이벤트'에 참여하면 네이버 포인트 100% 당첨 기회를 얻는다. 세라피움 모이스트 인 트리트먼트는 마일드 필링과 보습 케어가 동시에 가능한 크림 스킨 제품이다. 피부 장벽을 지켜주는 천연 세라마이드 성분과 8종 히알루산이 피부결을 촉촉하고 매끈하게 만들어준다. '간보스킨'(간 달걀 보습 스킨)이라는 애칭으로 불린다. 마이스킨 솔루스 담당자는 "환절기를 맞이해 각질과 건조 등 다양한 피부 고민에 직면한 고객이 세라피움 모이스트 인 트리트먼트를 더 손쉽게 만나 간 달걀처럼 매끈하고 촉촉한 피부를 가꾸기 바란다"고 전했다.

◇**지도표 성경김**
국내 대표 김 브랜드 '지도표 성경김'은 지난해 말 고급 조미 김 제품인 '곰창돌김'을 홈쇼핑에서 선보였다. 곰창돌김은 일반 제품보다 꼬불꼬불하고 두툼해 씹는 식감이 좋고, 단맛과 감칠맛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특히 지도표 성경김 특유의 고온 로스팅 기술이 더해져 더욱더 바삭하고 고

민트를 대상으로 50% 할인 판매, 무료 배송 등 혜택을 준다. 특히 본품과 함께 '체험본 샘플킷'을 증정한다. 일단 샘플을 써보고 만족하지 않을 경우 본품만 무료 반품하면 된다. 구매 확정 후 '포토 후기 선물 증정 이벤트' '후기 이벤트'에 참여하면 네이버 포인트 100% 당첨 기회를 얻는다. 세라피움 모이스트 인 트리트먼트는 마일드 필링과 보습 케어가 동시에 가능한 크림 스킨 제품이다. 피부 장벽을 지켜주는 천연 세라마이드 성분과 8종 히알루산이 피부결을 촉촉하고 매끈하게 만들어준다. '간보스킨'(간 달걀 보습 스킨)이라는 애칭으로 불린다. 마이스킨 솔루스 담당자는 "환절기를 맞이해 각질과 건조 등 다양한 피부 고민에 직면한 고객이 세라피움 모이스트 인 트리트먼트를 더 손쉽게 만나 간 달걀처럼 매끈하고 촉촉한 피부를 가꾸기 바란다"고 전했다.

◇**지도표 성경김**
국내 대표 김 브랜드 '지도표 성경김'은 지난해 말 고급 조미 김 제품인 '곰창돌김'을 홈쇼핑에서 선보였다. 곰창돌김은 일반 제품보다 꼬불꼬불하고 두툼해 씹는 식감이 좋고, 단맛과 감칠맛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특히 지도표 성경김 특유의 고온 로스팅 기술이 더해져 더욱더 바삭하고 고



소한 맛을 자랑한다. 현대홈쇼핑과 진행한 방송에서는 구매 고객에게 '무료 체험 1봉' 혜택을 제공했다. 상품 수령 후 1봉을 개봉해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료 반품이 가능하도록 해 호응을 얻었다.

◇**코알라**
호주 허퍼니처 브랜드 '코알라'는 지난해 7월 국내 론칭하면서 구매 후 120일(4개월) 이내 반품 시 전에 환불해주는 '120일 체험' 서비스를 선보였다. 스타트업인 코알라는 자국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앞세워 설립 2년 만에 연간 매출액 5000만 달러(약 570억원)를 돌파했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보통 할인 행사 시 다른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는 여타 브랜드와 달리 코알라는 이후 국내에서 진행한 각종 할인 행사에서도 이 서비스를 유지해 호평을 듣고 있다. 김재환기자

GS리테일, 심플리쿡 봄 제철 메뉴 30% 증가

GS리테일 밀키트 브랜드 심플리쿡은 봄 제철 식재료를 활용해 선보인 메뉴 주문량이 전주 대비 30% 늘었다고 8일 밝혔다. 심플리쿡의 '삼색봄나물 소불고기 전골'은 심플리쿡이 봄을 맞아 한식 인기 메뉴인 소불고기 전골에 봄 채소인 국내산 봄동, 달래, 냉이 등을 조합해 기획한 봄 제철 메뉴다. 향긋한 봄 나물의 풍미와 달콤 짭조름한 불고기 맛을 함께 즐길 수 있다. 이달 말까지 40% 할인 행사가 진행돼 GS프레시몰 등을 통해 1만 1900원에 구입 가능하다. 심플리쿡은 제철 메뉴 2만 '쭈꾸미 미나리 초무침'을 이달 중순 출시하는 것을 시작으로 제철 메뉴 라인업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온라인 장보기 플랫폼 GS프레시몰은 봄 제철 채소 행사에 나선다. 미나리, 봄동, 냉이, 방풍나물 등 20여종에 달하는 국내산 봄 채소를 제철 신선 기획전 등



을 통해 최대 28%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매일 다른 채소를 100원에 판매하는 '채소 100원 딜' 등을 통해서도 다양한 봄 제철 채소를 시리드로 선보인다. 최이슬기자

봄맞이 대한민국 수산대전...명태·오징어 등 최대 40% 할인

오늘부터 27일까지 오프라인·온라인 쇼핑몰서 열려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수산물 가격 안정세를 유지하기 위해 오는 10일부터 27일까지 '2022년 대한민국 수산대전-3월 봄맞이전'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

다. 행사 품목은 오징어, 고등어, 명태, 갈치, 조기(굴비), 마른멸치 등 대중성어종 6종과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정 소비가 증가한 포

장회(우럭·광어)다. 특히 러시아 의존도가 높은 명태 가격이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소폭 상승함에 따라 이번 행사 등을 통해 소비자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GS리테일, 이마트트레이더스 등을 포함한 오프라인 12개사와 SSG.com, 쿠팡, 위메프 등 21개 온라인 쇼핑몰이 참여한다. 해수부는 1인당 1만원 한도로 20% 할인을 지원하며 참여 업체의 자체 할인을 더해 소비자들은 품목별로 최대 40%까지 할인된 가격에 행사 품목을 구매할 수 있다. 해수부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수산물 등 유관 기관과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해 행사 전후 가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는 한편 불시에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실제 할인 가격을 확인해 소비자가 할인행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오유나기자